

독일의 중등교육에 대하여

정진성*

The Secondary Education System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Chin-Sung Dury Chung

Abstract

This paper makes use of the variation in Secondary sector- organisation and structure in German education compared to the Korean secondary educational system.

The basic law in Germany gives people the right to self-fulfillment and the right to choose their occupation or profession, place of work, study or training according to their individual abilities. That is, every student can choose which school to attend (if she or he is fit to attend.) In Germany school attendance is compulsory for children of ages 7 to 18. At least nine years of this period they must attend a full-time school and then they choose either to continue the full-time schooling (Gymnasium) or attend a vocational school (Berufsschule) parttime.

Secondary education, the third level of education, is divided into two levels: junior secondary education (also called intermediate secondary education) and senior secondary education. Upon completion of the Grundschule, students between the ages of ten and sixteen attend one of the following types of secondary schools: the Hauptschule, the Realschule, the Gymnasium, the Gesamtschule, or the Sonderschule (for children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 Students who complete this level of education receive an intermediate school certificate. Adults who attend two years of classes in evening schools can also earn these intermediate school certificates, which permit further study.

* 한국해양대학교 유럽학과 부교수

Junior secondary education starts with two years (grades five and six) of orientation courses during which students explore a variety of educational career paths open to them. The courses are designed to provide more time for the student and parents to decide upon appropriate subsequent education.

The variety of educational programs, tracks, and opportunities available to students increases at the senior secondary level. The largest single student group attends the senior level of the Gymnasium, the *Gymnasiale Oberstufe*. This level includes the traditional academically oriented Gymnasium, the vocational Gymnasium, the occupation-specific *Fachgymnasium*, and the *Gesamtschule*.

Almost all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and about 95 percent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re public.

In theory, students are able to choose the type of education they want and are given access to their preferred occupation or profession. The goal of educational policy is therefore to provide each student with opportunities to grow personally, professionally, and as a student in accordance with his or her abilities and preferences. The *Länder* are to provide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and quality education for all through a variety of educational institutions.

key words : 교육시스템, 직업교육, 이원적 시스템, 중등교육, 진로탐색과정

1. 들어가는 말

다른 나라의 교육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할 경우 대개 다음과 같은 질문이 따를 것이다.

몇 살 때 학교에 입학 하고, 어떤 종류의 학교가 있으며, 얼마 동안 학교에 다니는가? 교육 단계나 형태에 따라 학생들이 어떻게 나뉘는가? 교육 단계별로 어떤 시험이 있는가? 하루 중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과 수업시간, 휴식시간 등은 어떠한가?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공부하며, 점수 제도는 어떠한가? 유급제도는 있는가? 어떤 외국어를 배우며, 제 1외국어와 제 2외국어는 무엇인가? 학업(중/고등)을 마치고 무엇을 하는가? 학교나 교육제도에 대하여 어떤 변화를 바라는가?

몇 년 전 한국 해양대와 부산대에서는 “청소년을 통해 본 유럽문화”를 알아보

기 위해 위와 같은 질문 형식으로 유럽 6개국 청소년들과 한국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한 적이 있었다. 유럽 청소년들의 답변 내용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특히 통계에 바탕으로 한 답변보다는 응답자의 개인적 상황이 많이 녹아 있는 것이 특징으로 관찰 되었다. 이와 비교하여 한국 학생들의 대답은 단편적이며 잘 알려진 내용들이었다. 한국 학생들이 이런 답변을 한 것은 무엇보다도 학교의 종류와 교육제도가 다양하지 않고 획일적인데 그 원인이 있을 것이며, 교육의 내용 또한 대학 입시에 초점을 두느라 극히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본 강의는 독일의 중/고등학교의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아래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1. 일반적으로 독일에서는 한국의 초등학교 4학년 또는 6학년 나이가 되면 진로가 결정된다. 대부분이 대학에 진학한 뒤에도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에 비해 독일 교육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
2. 독일에는 인문계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 수는 전체의 1/4밖에 되지 않으며 대학은 전국적으로 300여개뿐이다. 대부분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꿈꾸는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3. 교육제도는 역사와 문화적 특성과 연관이 있다. 독일의 경우 길드 제도와 도제제도를 바탕으로 한 실업 교육이 발달되어 있다. 한국의 실업 교육 개선을 위해 독일의 실업 교육제도에서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

2. 독일 교육제도의 특징

독일 연방공화국이 추구하는 교육 정책의 목표는 각 개인에게 저마다의 능력과 관심에 부합하는 최상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천연 자원이 많지 않은 공업국 독일은 우수한 전문 인력과 노동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교육을 통해 우수한 인력을 조기에 발견하고 직업교육을 통해 경제 인력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독일교육의 특징은 일반 교육제도와 직업 교육제도의 상호 전환이 수월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학교를 졸업하여도 원하는 직종이나 가고 싶은 대학의 학과에 들어 갈 수 있는 길이 항상 열려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각 주 교육청에

서 소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기관들을 살펴보면 서로 다른 유형의 학교간의 자유로운 전/편입학이 눈에 띄는데 이런 융통성 있는 교육 형태는 개인의 학문적 그리고 직업적 목표를 충족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방적인 시스템과 직업교육 제도가 발달한 독일교육 제도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방정부는 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틀만을 제시할 뿐이고, 주 정부(16개 주)는 그 전체적인 틀을 흐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세부지침을 마련한다. 따라서 각 주는 주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교육 시스템과 학교 유형을 결정한다.

둘째, 독일 교육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대학에 진학할 학생과 직업교육을 받을 학생을 조기에 분류하고 진로에 따라서 맞춤형 교육을 한다는 것이다. 조기 진로 확정 시스템과 도제제도는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독특한 전통이다

셋째, 각 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1학년부터 9학년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의 4개 주에서는 10학년까지 외 기업체와 학교가 동시에 실시해 오고 있는 3년간의 이원적 시스템 (Das Dualsystem)*교육의 이론 수업도 의무로 하고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모든 교육은 무상이다 (최근 들어 약 350 유로 상당의 등록비 검토 중).

넷째, 독일은 교육의 전 과정에서 일정한 능력이 되지 않으면 낙제를 시키는 철저한 유급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초등학교 졸업생 가운데 상위 1/4에 속하는 학생들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김나지움’에 입학할 수 있다. 졸업시험으로 동시에 입학자격증이 주어지는 아비투어 (Abitur) 시험은 창의성과 과학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주관식 문제가 대부분 인 것이 특징이다.

3.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독일 어린이들은 일반적으로 6월 30일을 기준으로 만 6세가 되면 초등학교

* 산업 현장에서 실습을 하고 직업학교에서 이론을 공부하는 시스템. 실습생들은 주 1-2일은 직업학교에서 이론 수업을 받고 3-4일은 산업체에서 실습을 한다. 이론 수업은 주당 9-14시간이며 내용은 전공과 일반 교양 과목이 반반이다. 교육기간은 직종에 따라 그리고 직업훈련생의 일반교육 이수 정도에 따라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2년에서 3년 반 정도이다.

(Grundschule)에 입학하는데 9월에 학기가 시작된다. 초등학교의 4년 과정이 끝나면 중등 I단계에 속하는 2년간의 진로결정과정 (Orientierungsstufe)이 있다. 초등학교 4학년과 중등 I단계 과정에 속하는 5~6학년 과정은 진로결정에 중요한 시기로서 이때의 판정에 따라서 진학할 학교 형태가 결정된다. 그런데 진로를 결정할 때 중요한 것은 학부모의 희망이 아니라 생활기록부와 성적이다. 이 시기에 교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다양한 형태의 시범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을 평가한다.

독일의 중학교는 우선 외형적인 면에서 우리의 제도와 큰 차이가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구분되어 있는 우리와는 달리 독일의 중학교 과정은 초등학교와 연계되어 있거나 고등학교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얼핏 보면 그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다.

초등학교 4년과 2년간의 진로결정 과정을 거친 후 학생들의 개성과 능력에 따라서 인문계 중고등학교인 “김나지움” (Gymnasium 7~13학년)이나 중간학교인 “레알슐레” (Realschule 7~10학년), 혹은 레알슐레보다 성적이 더 낮은 학생들이 가는 일반학교인 “하우프트 슈레” (Hauptschule 7~9학년)로 진학한다. 레알슐레와 하우프트 슈레는 직업교육을 위한 학교이지만, 이곳에서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김나지움으로 옮겨갈 수 있다. 반대로 김나지움에서 공부하기가 어렵거나 일정한 성적을 못 받을 경우 (낙제제도) 레알슐레나 하우프트 슈레로 옮겨진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진로를 결정 하는 것이 너무 이르다는 비판에 따라 독일 북쪽에서 사회당 집권지역 (함부르크, 브레멘)을 중심으로 모든 학생들이 종합학교(Gesamtschule)라는 새로운 시스템 안에서 맞춤형 교육을 받는 형태가 도입되었다.

2002년도 8학년의 진학 상황을 보면 하우프트 슈레 22.8%, 레알슐레 24.5%, 김나지움이 29.6, 종합학교 8.7%이다. 5년 과정으로 초등학교 4년을 합해 9학년 까지인 하우프트 슈레와 6년 과정으로 10학년을 마친 후 졸업하는 레알 슈레, 그리고 김나지움 13학년 중 10학년 까지를 중등 I과정 (Sekundarstufe I)이라고 한다.

중등 I과정과 11학년부터 13학년까지의 중등 II 과정이 우리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해당된다. 그리고 고등학교 형태 또한 인문계든 실업계든 모두 3년의 과정으로 짜여진 우리의 제도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중등 I과정을 마친 후 진로 선택의 기회가 한 번 더 있다. 즉 레알슐레를 마치고 학업 능력이 뛰어난 학생은 본인이 원할 경우 김나지움 상급반으로 진학하여 대학입학자격 시험

(Abitur)을 거쳐 대학에 들어 갈 수 있다.

처음부터 김나지움으로 진학한 학생들은 중등 I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자동적으로 중등 II 과정 (Sekundarstufe II, 11-13학년)으로 진학하거나 아니면 레알슐레나 하우프트 슐레의 학생들처럼 직업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독일 대학은 모두 국립이다. 대학은 州에서 설립하지만, 대학의 확충, 설립 및 재정에 관한 기본틀은 연방정부와 州정부가 함께 결정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재수를 하면 수학능력 시험을 다시 보아야 하지만 독일의 아비투어는 대학입학자격 시험이기 때문에 한 번 보는 것으로 족하다. 따라서 김나지움에서 획득한 아비투어만 있으면 누구나 언제든지 원하는 대학이나 원하는 학과에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의대나 수의대 등 인기학과는 입학정원제를 실시하므로 아비투어 성적에 따라 당락이 결정된다. 그렇지만 만약 원하는 학과에 입학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다음 해에 또 지원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한 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는 매 학기마다 소정의 가산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원하는 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 대학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소위 말하는 일류, 이류 구분이 없기 때문에 명문대학이라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전공학과, 담당교수에 따라 대학을 선택한다.

독일에는 현재 약 300개 이상의 대학교가 있다. 이 중에서 약 90개 이상이 일반대학교(Universität)이고, 그 외에 공과대학(Technische Universität), 전문대학(Fachhochschule), 통합대학(Gesamthochschule), 예술대학(Musik-und Kunsthochschule), 교육대학(Paedagogische Hochschule)이 있는데, 모두 국립이므로 등록금이 없다. 다만 주마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졸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정의 등록금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워낙 학생들의 반발이 심하여 연방주와 대학 사이 협상이 진행 중이다. 독일에서는 보통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보통 8 학기에서 12학기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그리고 대학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2년에서 5년까지 걸린다. 독일에는 2년제 대학과 대학원 과정이 없다. 전문대학의 경우 보통 4년제(8학기 이수)이며 간혹 3년제가 있다.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한다는 것은 우리의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이 합쳐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학부만 졸업하고 독일에서 유학할 경우 대학교의 중간부터 시작하게 된다. 입학자격은 일반적으로 독일의 아비투어와 동등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대학 예비 과정(Studienkolleg, 2학기)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미술, 음악 등 예능계 전공자는 상기 학력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실기로 기초지식과 재능을 인정받

으면 입학이 가능하다. 최근 우리나라 학생들도 수학능력시험에서 62% 범위에
만 들면 어학능력 시험 합격 후에 입학 할 수 있는 조건부 입학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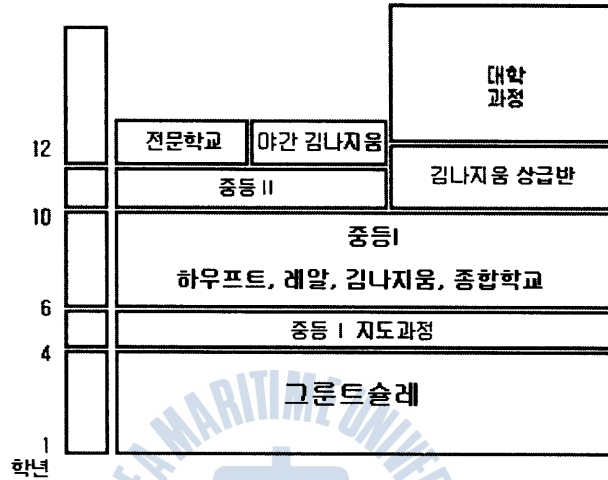


그림. 독일의 교육학제

4. 인력양성에 초점을 둔 독일의 중등교육

4.1 김나지움 (Gymnasium, 7-13학년)

독일 학부모들은 자녀가 초등학교를 마칠 때 교사로부터 학업을 수행할 능력
과 소질이 있다고 인정을 받으면 우리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김나지
움에 진학을 시킨다. 김나지움은 7학년부터 13학년까지 7년간으로 이 기간에
대학수학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 스투트가르트에 있는 바덴-뷔르템베르크 주(州)의 김나지움 교육과정을 살
펴보면 책임성, 자발성, 논리적 사고력, 구조형성 능력, 의사소통 능력, 정보의
수집과 종합력, 문화 이해력, 창조력, 단결심, 공동 작업력, 그리고 성취의욕 배
양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과정부터 김나지움을 졸업할 때까지 13년이 소요되는데, 김나지움
과정은 대학 공부를 위한 준비 단계이므로 김나지움 졸업시험은 곧 대학 입학
자격(Allgemeine Hochschulreife)을 주는 아비투어(Abitur)로 마무리된다. 물론 아

비투어 시험에 있어서 시험을 치르는 과목의 선택과 김나지움에서 이수하는 교과목과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수과목은 중등교육 II (10학년 이후의 교육)에서 김나지움의 교과과정은 주로 A = 언어-예술 분야, B= 사회학 분야 c=수학-이공계 분야로 나누어진다.

이수과목 분야	Aufgabenfeld A 언어-예술분야	Aufgabenfeld B 인문-사회학 분야	Aufgabenfeld C 수학-자연과학 분야
전공필수 및 선택 과목	국어	지리학	수학
	영어 (제 1 외국어)	역사학	생물학
	프랑스어 (제 2 외국어)	정치학	화학
	라틴어 (제 2 외국어)	심리학	물리학
	스페인어 (제 2 혹은 3 외국어)	사회학	IT 공학, 컴퓨터
	터키어 (제 3 외국어)	교육학	
	중국어, 일본어 (제 3 외국어)	경영학	
	미술		
	스포츠		
	음악		

언어계열의 경우 외국어 과목에 중점을 두어 국어인 독일어 외에 제1외국어 (영어), 제2외국어 (프랑스어, 라틴어, 스페인어) 그리고 고전어인 그리스어와 최근 들어 인기가 있는 중국어, 일본어까지 4~5가지의 언어를 배울 수도 있다. 자연과학 계열은 기초학문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최근 들어 중시되고 있는 IT 관련 교육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최근 각 주의 김나지움에서는 IT 공학을 자연과학 분야에서 심화학습을 시키고 있다. 인문-사회학 분야는 전 과목이 발표와 토론 (speech and debate)식 위주로 이루어 지고 구두 시험의 비중이 필기시험과 동일하다. 구두시험 준비가 더 까다롭다는 사실은 발표와 토론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독일의 교육적 전통과 풍토를 보여준다.

독일의 김나지움 상급과정 11학년은 비교적 자유로운 시기이다. 학교성적이 진학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으므로 학생들은 이 시기에 주로 영어권이나 프랑스 언어권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수학하기도 한다

그리고 김나지움의 11학년때부터 학생들은 자기의 소질과 적성, 그리고 학업 능력에 따라 공부할 과목을 조합한다. 졸업시험인 아비투어에는 위 각각의 분

야에서 한 과목씩 선택하여 총 네 과목을 치루는데, 과목당 시험시간은 약 6시간이다.

졸업시험인 아비투어 시험은 객관식이 아니라 창의성과 과학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주관식이 주류이며 필기시험은 거의 다 작문 시험으로 실행이 된다. 아비투어는 11학년부터 13학년까지의 내신 성적과 졸업시험 점수를 7:3으로 반영하고 있으므로 3년 동안의 학교 공부 자체가 매우 중요시되고 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상급학년으로 진급할 때 성적 미달이면 낙제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비투어 필답고사에 합격하지 못하면 13학년 과정을 다시 다녀야 한다. 이런 낙제 제도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 무조건 졸업하는 우리의 경우와 달리 독일의 김나지움 과정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졸업 후의 진로

- 1) 13+1 직업전문학교에서의 공부
 - 13+1 직업 칼리지
 - 13+3 정착된 이원 시스템의 직업교육 (차후 설명)
- 2) 13+ 5 대학교

4.2 레알슐레 (Realschule, 7-10학년)

레알슐레는 주(州)의 산업기반에 따라 다양한 편차를 보인다. 중소기업의 발달 여부에 따라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그리고 업종에 따라 졸업생들의 진로와 취업 전망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레알슐레는 진로결정과정인 5-6학년 이후의 7-10학년 과정을 말하며, 과정을 마치면서 시행하는 종합시험을 통해 실업학교 졸업증서(Mittlere Reife)를 취득할 수 있다. 레알슐레의 교육 목표는 대학 교육보다는 직업생활을 일찍 시작하려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기본 소양을 함양시켜 주는 것이다. 또한 이 레알슐레는 앞으로의 전문직 활동을 위해 필요한 여러 재교육과 상급교육을 받을 기회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관심과 성적에 따라 김나지움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실업학교 졸업 후에 직업전문 김나지움(Berufliches Gymnasium)으로 진학하여 대학에 입학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직업컬리지(Berufskolleg) 등에서 구체적 직업 선택을 위한 보충교육을 받을 수가 있다. 그 후에는 직업연수 과정이 시작되는데 독일 교육제도의 특징인 이원적 시스템(duales System)에 따

라 기업체나 개별 영업체에서 실습을 하거나 학교에서 이론과 교양을 쌓는다.

2002년도 이원적 시스템의 직업교육의 분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공업과 무역: 52%
- 수공업: 33%
- 농업: 2.3%
- 서비스 업: 2.7%
- 자영업: 9.0%
- 식품영양업: 0.8%
- 해운업: 0.2%

Realschule 수업시간 총괄표

과 목		학 년					
		5	6	7	8	9	10
의무 과목	종교	2	2	2	1	2	2
	윤리 ¹⁾				1	2	2
	독일어	5	5	4	3	4	4
	지리	2	2	1	1	1	1
	역사			2	2	1	2
	사회			2	1	2	1
	영어/프랑스어	5	4	4	4	4	4
	수학	4	5	3	4	4	4
	물리				2	1.5	2
	화학				2	1.5	1
	생물	2	2	1	1	2	1
	체육	3	3	3	3	2	3
	음악	2	2	2	1	1	2
	미술	2	3	2	1	1	
기술	2	2					
소계		29	30	26+1 ²⁾	26+1 ²⁾	27	27
선택의무 과목	자연과 기술			3	3	3	3
	자연과 기술			3	3	3	3
	자연과 기술			3	3	3	3
총계		29	30	30	30	30	30

졸업 후의 진로

독일은 레알슈레나 하우프트 슈레 졸업 후 2/3 이상이 다양한 형태의 직업학교에서 (Berufsschule) 이원적 직업교육을 (Das Duale System) 받고 있다. 나머지 25%는 직업전문학교 (Berufsfachschule), 직업칼리지(Berufskolleg), 직업전문고등학교 (Fachoberschule), 전문학교 (Fachschule) 등에서 다양한 직업교육을 받고 있다. 직업교육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이원적 시스템은 기술과 이론을 겸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제도이다. 직업교육 후 일정한 과정과 국가고시를 통해 구체적인 전문직종의 자격이 부여 된다 (즉 전문 페인트 공, 전문 파이프 수리공, 전문 자동차 공).

- 1) 10+3 직업학교 : 이원적 시스템을 갖춘 직업학교에서 일 주일에 한번 약 7 시간씩 이론을 배우고 기업체에서 실습함 (진로: 판매원, 은행원, 공산품 제조원, 디자이너, 유치원 보조, 여행사 가이드,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 2) 10+2 직업 전문학교(Berufsfachschule) : 레알슈레 졸업 이후 전문학교에서 이론과 실습을 동시에 함 (진로 : 심리 치료사, 노인 간호사, 양로 조력인 (Altenpfleger/in), 음악 및 기술 과목 교사, 공무원, 생물공업기술자, 화공학기술자, 정보처리사, 사진기술사, 방사선기사, 약사, 산업디자인, 환경보호자),
- 3) 10+3 직업 칼리지 (Berufskolleg) : 졸업 시험을 통해 전문대학 입학 자격중 (Fachhochschulreife) 획득 가능 (진로: 공·상업의 여러 전문 직업)
- 4) 10+2 직업전문고등학교 (Fachoberschule) 나 10+3 김나지움: 직업 관련 김나지움이나 일반 김나지움에서 아비투어 준비

4.3 하우프트 슈레 (Hauptschule, 7-9학년)

일반적으로 시각적-구체적 사고와 활동에 적성이 맞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학교로 수업연한은 5년이다. 이론적-추상적 사고를 필요로 하지 않은 유형의 직업을 가질 학생들에게 필요한 기본 소양과 기술 능력의 배양을 위한 기초지식을 제공한다. 8학년 때부터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분야에서 주 1회 실습을 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 점차 자신이 종사할 직업에 대해 구체적 경험을 축적하게 된다. 하우프트 슈레에서는 노동(Arbeit), 경제(Wirtschaft), 기술(Technik) 등 3 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수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학교를 다니다가도 다른 유형의 학교로 전학을 하거나 보완교육 등을 통해 상급학교로의 진학 가능성은 열려 있다.

하우프트슐레 수업시간 총괄표

과 목	학 년					
	5	6	7	8	9	10
종교/윤리	2	2	2	1	2	2
독일어	5	5	5	4	4/5	5
지리	2	1	1	1	1	
역사/사회		1	2	2	3	2
영어	5	4	3	3/5	3/5	5
수학	4	5	4	5	4	5
물리			1	1	1	3
생물/화학	2	2	2	2	2	2
체육	3	3	3	2	3	2
음악	2	2	1	1	1	1
미술	2	2	1	1	1	
경제/정보학			2	2	1	2
기술	2	1,5	1,5	3	3	3
가내경제/섬유공업		1,5	1,5	3		
총계	29	30	30	30/32	30/31	32

졸업 후의 진로

- 1) 9+1 (레알슐레) : 원하는 학생들은 10학년 과정을 이수한 후 실업학교 졸업 증서(Mittlere Reife)를 획득할 수 있다.
- 2) 9+3 직업학교(Berufsschule) : 9학년 졸업 이후 3년 동안 이원적 직업교육 시스템에 따라 현장과 직업학교에서 이론과 실무 교육을 동시에 받는다. 이들은 일주일에 한번 씩 약 7시간의 이론교육을 직업학교에서 받아야 한다. 직업교육은 대부분 학교에서 이론을 배우고 기업에서 실습 하는 이원적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며 기업과 국가는 직업교육에 공동책임을 갖는다. 몇몇 다른 EU 국가에서도 독일의 이원적 시스템에 관심을 갖고 직업 교육을 부분적으로 기업에 위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진로: 유치원 보모, 페인트공, 전기공, 자동차공, 미용사, 건축zeichner, 영업 판매사, 노인도우미 등
- 3) 9+3+2 (직업 전문학교 Berufsfachschule) :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인을 위해 행하는 심화직업교육

진로: 환경 및 쓰레기 리사이클링학, 물리 테크닉, 의료공학, 언론학, 기계공학, 플라스틱 가공학, 식품영양학, 가죽 가공학, 환경 경영학, 농학, 자동차 공학, 의상학, 화학, 편집디자인학, 인쇄학, 염색학, 미세공학, 인테리어 디자인학, 원예학, 정원학, 열공학, 컴퓨터공학, 목재학 등

4) 9+1+2 레알슐레 진출 이후 직업전문고등학교 (Fachoberschule)나 2년의 컬리지 (Studienkolleg)를 다니며 전문대학 입학 자격증(Fachhochschulreife) 획득 가능.

직업 관련 김나지움이나 일반 김나지움에서 아비투어 준비, 전문대학입학 자격증.

진로: 공·상업의 여러 전문 직업

독일 중 II 과정 일람표

학교명	수학기간	입학전(자격시험)	국내학제와의 비교
인문학교 Gymnasium	3년 7-13학년	중등영역 I 과정(10학년)을 수료한 학생 자동 진급	국내의 인문계 고등학교에 해당. 수업연한은 1년 더 많은 13년임
전문학교 Fachoberschule	2년 11-12학년	레알슐레를 졸업한 자는 자동 입학	국내의 실업계 고등학교에 해당. 분야별 전문 과목 교육 위주
직업전문학교 Berufsfachschule	2~3년	레알슐레를 졸업한 자는 입학 가능	국내의 실업계 고등학교에 해당. 직종별 실무교육 위주
전문학교 Fachschule	1~3년	중등영역 I (9학년, 중학과정에 해당)을 수료한 자	국내의 고등학교 수준의 전문학교
직업 칼리지	3년	중등영역 I (10학년)을 수료한 자	이원적 시스템의 직업교육, 전문대 입학자격증이나 대학입학 자격증인 아비투어 교육 위주

각 학교 최종학력 증명서

학년	각 학교 최종학력 증명서		
13			Abitur(일반대학입학자격증명)
12			Fachhochschulreife(전문대학입학자격증명)
11			
10	Realschulabschluss(레알슐레졸업증명)		
9	Hauptschulabschluss(하우프트슐레졸업증명)		
8			
7			
6			
5			

4.4 종합학교 Gesamtschule (5-13학년)

1970년부터 독일은 실험적으로 종합학교(5학년부터 10학년을 위한 과정)*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종합학교의 교육목표는 부모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학교 선택을 지양하고, 다양한 사회계층의 아동들이 함께 학습과 체험을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경험을 쌓아가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능력에 따른 차별화가 아닌, 학생의 다양한 재능과 기호를 존중하는 가운데 공동수업을 통해 학습과정의 개인화와 단체 안에서의 개별화를 선호한다.

종합학교 제도는 전통적인 방법에 따라 하우프트슐레, 레알슐레, 김나지움으로 분리해 온 세 가지의 학교 종류를 통합한 것으로, 졸업형태도 세 가지(하우프트슐레 졸업, 레알슐레 졸업, 아비투어)로 나뉜다. 종합학교는 4학년을 마친 후에도 진로선택이 뚜렷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이상적인 학교 형태로서, 9학년이 시작할 때까지 진로선택에 대한 결정을 미룰 수 있다.

종합학교는 주로 통합적 종합학교(Integrierte Gesamtschule)**와 협력적 종합학교(Kooperative Gesamtschule)***로 구분이 된다. 통합적 종합학교에서는 학교종류가 하나의 학교복합체 안에 집약되는 것에 비해 협력적 종합학교에서는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교장 사이의 협력 가능성을 강조한다. 이를 통하여 최대한의 융통성과 학생 개개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업은 핵심(Kern)그룹과 과정(Kurs)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하우프트슐레, 레알슐레, 김나지움의 구분은 없다.

종합학교의 교육 과정은 진로 탐색 과정(5학년부터 7학년까지), 진로 선택 과정(8학년), 졸업 과정(9, 10학년)으로 나뉘어진다. 핵심(Kern)그룹으로 불리는 5학년 과정에서는 추후 졸업과정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공동으로 수업을 받는다. 6학년부터는 영어 및 수학과목을 난이도에 따라 두 과정(A와 B과정)으로 구분한다. 7학년에 가서 국어, 영어, 수학이 A, B, C과정으로 나뉘어지고, 외국어와 실용과목(가사, 기술, 노동론 등) 중 하나를 선택한다.

* 종합학교(Gesamtschule) : 종합학교는 70년대 초에 기존의 재래식 학교제도에 추가로 도입된 새로운 학교제도임. 종합학교에서는 초등학교 4년 과정을 거친 학생이 2년간 '장려단계(Förderstufe)'에서 수업을 받음. 수학과 영어를 세 등급으로 나누어 자기 수준에 맞는 학급에서 수업을 받으며, 성적의 변화에 따라 학습단계를 바꿔 나갈 수 있음

** 통합적 종합학교 : 5학년부터 10학년까지 한 건물 내에서 학교 구별 없이 수업을 하는 학교로 일반적인 종합학교를 말함

*** 협력적 종합학교 : 한 건물 내에서 학교를 분류(하우프트슐레, 레알슐레, 김나지움)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로 자기 능력과 적성에 따라 학교 이동(전학)이 자유로움

8학년부터 진로선택이 가능해져서 자신의 성적, 기호 및 능력에 맞는 선택과목을 학습하고, 9학년에 진급하여 자신이 선택한 진로와 성적을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진로를 선택한다. 이때부터 수업계획은 3가지 학교형태(하우프트슐레, 레알슐레, 김나지움)에 따른다.

독일과 한국의 교육제도

한국의 교육제도		학년	나이	학년	독일의 교육제도																	
취업		-	29	-	취업																	
		-	28	-																		
		-	27	-																		
		-	26	-																		
		-	25	-																		
대학원	사설	-	24	-																		
		-	23	-																		
대학교	직업 학교	4	22	-																		
		3	21	-																		
		2	20	-																		
	전문 대학	1	19	-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3	18	13																		
		2	17	12																		
		1	16	11																		
중 학교		3	15	10																		
		2	14	9																		
		1	13	8																		
초등학교		6	12	7																		
		5	11	6																		
		4	10	5																		
		3	9	4																		
		2	8	3																		
		1	7	2																		
유치원		-	6	1																		
		-	5	-																		
		-	4	-																		
		-	3	-																		

개인의 학습능력과 성취도에 따라 대부분의 학생들은 7학년부터 수학, 영어, 9학년부터 국어 및 화학/물리 과정을 이수한다. 7학년과 9학년부터 개인적 선호

도에 따라 외국어, 자연과학, 노동론 혹은 예술계 분야에서 선택과목을 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총괄적인 상담 및 육성계획을 통하여 개별적인 학교선택이 보장된다. 이 외에도 장애자를 특수학교로 편성시키지 않고 종합학교에서 정상학급에 재학시킴으로써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는 시험모델 등이 시행되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사회적·감정적 발전과 타인을 배려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일부 종합학교는 종일학교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가정에서 창조적인 여가형성의 기회가 없는 학생들에게 특별활동을 통해 다양한 관심거리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가정형편에 따른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보호와 상담 및 문화접촉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다. 그러나 제도를 도입할 당시의 기대와 희망과는 달리 현재 종합학교 설립은 확산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서는 지나치게 높은 예산, 전문 과목의 분산, 협력의 문제, 교과과정이 방만하여 일목요연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5. 맺는말

독일의 중등 과정은 우리나라의 그것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수업연한이 다소 긴 편이다. 그 이유는 학생들의 진로를 일찍 결정하는 독일 교육제도의 특징에서 찾을 수 있다. 독일 교육의 특징은 장차 대학에서 학문을 할 학생들과 직업전선에 나갈 학생들을 미리 구분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한다는 것이다. 이런 독일식 교육이 가진 최대의 장점은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직장을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교육과정이 다소 복잡하고 수업연한도 다소 긴 이유는 맞춤형 교육을 조기에 실시함으로써 생기게 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독일의 젊은이들도 대학을 선호한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사회적 차별은 그리 심하지 않다. 실업계 출신 학생들도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실업학교의 경우 기업체와 학교에서 일정 기간 동안 교육함과 동시에 국가시험이 이루어진다. 원칙적으로 중학교 과정이 끝나는 9학년 이후부터 현장에서의 실습과 직업학교를 겸한 직업교육이 “이원적 시스템” (Das Duale System)이란 통일된 이름 아래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이원적 직업교육 시스템의 일반적 목적은 학교의 이론교육과 함께 산업체에서 실습을 병행함으로써 학

교 교육에서 부족하기 쉬운 기술과 산업체에서 소홀하기 쉬운 이론교육을 상호 보완, 이론과 기술을 겸비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수준의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이 제도는 학생들로 하여금 꼭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그 직업분야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고 있다. 또한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당한 수의 독일 학생들이 우리와는 달리 무작정 대학에 가지 않고 직업교육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1970년 직업교육지원자의 약 80%가 하우스프트 슐레 졸업생이었으나 1993년에는 34.2%로 줄었고 레알슐레 졸업생이 35.8%, 대학입학 자격생이 13.7%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독일이 이웃나라에 비해 비교적 실업률이 낮았던 이유는 이런 이원적 직업교육 시스템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이 시스템에도 문제가 없지는 않다. 우선 실습장소와 실습생을 양성하는 예산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산업시설의 기계화됨에 따라 현장인력이 줄어들고 실업자 수가 증가하는 데다, 실습장 운영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대기업들이 실습장 운영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8년 독일 교육부의 자료에 의하면 2005년까지 70만개의 실습장소가 모자랄 것으로 예상한 결과 학생들은 계속 인문계 과정을 택하고 있다. 그 결과 1970년대에는 20%의 김나지움 진학률이 2002년도에는 29.6%로 높아졌다.

일반적으로 독일(유럽)에서는 학생들이 대학입학자격시험 이후 바로 대학 공부를 시작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부는 외국어를 배우기 위하여 숙식과 용돈을 받고 일하는 형태의 부업이나 여행을 떠나기도 하며 일부는 원하는 전문 대학(1년이나 2년의 실습기간을 원하는 호텔, 외식, 컨벤션 등)에 진학하기 위하여 실습을 하기도 한다. 남학생들은 대체로 군복무를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한다. 일부는 아비투어 자격증을 요구하는 이원적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직업교육에 들어간다. 독일의(유럽)의 학생들이 바라보는 대학은 이미 전문화된 하나의 과정이며, 직업교육을 받거나 취업을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꿈을 가졌을 때, 그들의 사회는 그에 적합한 교육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계속교육, 평생교육, 전환교육). 중/고등학교를 마치면 벌써 어떤 특정한 전공 영역이 정해지며, 이 전공은 직업으로 연결되고 따라서 계속교육 혹은 평생교육의 기회와 효용도 그만큼 증대되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 진학과 관계없이 중/고등학교 교육이 전공의 측면에서나 교양의 측면에서나 사회에 적응하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반으로서 잘 기능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참고문헌

Allgemein bildende Schulen.

Fachserie 11, Reihe 1 für das Schuljahr 2002/2003.

Hrsg. v. Statistischen Bundesamt Wiesbaden.

Stuttgart: Metzler-Poeschel, 2003.

Arbeitsstab Forum Bildung:

Ergebnisse des Forum Bildung.

Bonn: 2002.

Hermann Avenarius et al.

Bildungsbericht für Deutschland -- Erste Befunde.

Opladen: Leske und Budrich 2003.

Baumert, Jürgen et al. [Hrsg.]:

PISA 2000 -- Die Länder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m Vergleich

Opladen: Leske und Budrich 2002.

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r Auswärtigen Kulturpolitik 2002.

Berlin: 2003.

Berichtssystem Weiterbildung VIII.

Integrierter Gesamtbericht zur Weiterbildungssituation in Deutschland.

Hrsg. v.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Bonn: 2003.

Berufliche Schulen.

Fachserie 11, Reihe 2 für das Schuljahr 2002/2003.

Hrsg. v. Statistischen Bundesamt Wiesbaden.

Stuttgart: Metzler-Poeschel, 2003.

Berufsbildungsbericht 2004.

Hrsg. v.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Bonn: 2004.

Deutscher Akademischer Austauschdienst Jahresbericht 2003.

Bonn: 2004.

Die Fachhochschulen in Deutschland.

Hrsg. v.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Bonn: 2003.

International Degree Programmes in Germany. Edition 2003/2004.

Hrsg. v. Deutschen Akademischen Austauschdienst (DAAD).

Bonn: 2003.

Tatsachen über Deutschland.

Frankfurt am Main: Societäts-Verlag, 2000.

www.tatsachen-ueber-deutschland.de



